

바이오 육성 3·12 프로젝트 추진

산자부, 5년 동안 총 1조원 투입 ... 2010년 바이오 수출 100억달러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른 바이오산업(BT)을 키우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1조원이 투자된다.

산업자원부는 7월8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황우석 서울대 교수, 강창을 서울대 교수, 제약기업 관계자, 바이오벤처기업 관계자 등 생명공학(BT) 인가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간담회에서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인프라·경영환경 개선 등 3대 목표와 12개 실천과제를 담은 <바이오 3·12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바이오 3·12 프로젝트는 △바이오기술 상품화를 위한 산업화기술 R&D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바이오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5년간 해마다 2000억원을 투자하는 3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또 ▲바이오산업화 기술발전 로드맵 작성 ▲산업화중심의 바이오 R&D 집중투자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융합신기술 발굴 ▲바이오특성 중심 R&D인 <바이오-스타> 개발 추진 ▲지역 바이오센터 구축 ▲의약품 위탁생산 공장 준공 ▲산학연 공동활용을 위한 평가·시험기반 확충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밸류체인 참여자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금융제도 개선으로 민간바이오투자 유도 ▲바이오산업 유통·무역제도 재정비 ▲전략적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등 12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2005년 1889억원이 투입돼 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투입예산이 2000억원선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산자부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 2010년까지 20여개 일류상품을 개발해 현재 8억8000만달러 수준인 바이오산업 수출액이 100억달러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0년에 바이오산업에서 고용이 7만5000명 늘고 생산도 1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4년 세계 14위에 머문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세계 7위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화학저널 2005/07/11>